

오늘의 성가

입 당	119	주님은 우리 위해	성 체	152 179	오 지극한 신비여 주의 사랑 전하리
봉 헌	216 221	십자가에 제헌되신 받아주소서	과 견	116	주 예수 바라보라

말씀의 초대 ■ 모세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신 수확의 만물을 바치며, 주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고 말한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다(복음).

제 1 독서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26,4-10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 시편 91(90),1-2,10-11,12-13,14-15(◎ 15 ㄴ 참조)



(후렴)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제 2 독서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8-13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4,4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3
 그대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밀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임수영(율리아) 박병준님의 영혼을 위하여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설옥순(요안나)의 영혼을 위하여 - 한광동(바오로)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경희(수산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수랏상 임수경(미카엘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임수영(율리아) 조대철(미카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임수영(율리아) 최안나, 안갑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임영민(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손영학(빈첸시오), 정분임(아네스)

 **지난 주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	\$1,404	주일 미사 참례자 수	197 명
교무금 (\$4,150)	함철주(1-12) 전광수(3-4) 한광동(3-4) 최율리오(3) 임광선(1-3) 이창우(3) 김영필(3) 장인석(1-2) 이화자(1-3)	백상현(3) 박화성(1-3) 이상화(3) 채희백(3-4)	정영철(3-4) 괄율리아나(3-4)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교무금과 감사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소식

◆ 2차 헌금

• 오늘 본당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2019 Bishop's Annual Appeal In-Pew Weekend

- 3/16-17 동안 신자석에 비치된 봉투를 이용하여 Bishop's Annual Appeal 금액을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인 복음화와 선교사업에 쓰이며 신학생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2019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3월 7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4,241(13.51%) 입니다.

◆ 체크 작성시 성당 명칭 변경

• 교무금, 헌금 체크 납부시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 특강

- 일시 및 장소: 3월 10일(일) 미사 후 성당
- 강사: 이남용(스테파노) 주임신부
- 주제: "INRI"
- 주제 성구: "유다인의 임금님 만세" (마르코 15 장 18 절)

◆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동안 미사 시작 30분전 11시부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단체별 봉사 일정
- 3/10 요셉회 3/17 프란체스코회 3/24 대건회
- 3/31 야고보회 4/7 청년회

◆ 도서 기증

• 친교실 도서방에 신간 도서를 기증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자 주소록 업데이트

• 친교실 성물대 옆에 공시된 주소록 계속 확인바랍니다. 주소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 주소 및 연락처를 작성하셔서 사무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미국 신심단체 Holy Name of Society 모임

- 일시 및 장소: 3월 12일(화) 저녁 7시 30분 친교실

◆ 2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3/30-3/31 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성당 시설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 성당 시설 관리를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테레사, 최경삼 안나, 김귀옥 실비아, 김경희 수산나

◆ 소공동체 소식

◆ 성모회 정기모임

- 일시: 3 월 10 일(일) 오후 3 시 30 분
- 장소: 손흥희(아네스) 자매님 댁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3 월 11 일(월) 저녁 8 시
- 장소: 친교실

◆ 반석회 모임

- 일시: 3 월 16 일(토) 오후 12 시
- 장소: 친교실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3 월 17 일(일) 미사 후
- 장소: 성당

◆ 야고보회 모임

- 일시: 3 월 17 일(일) 미사 후
- 장소: 최두철(요셉) 형제님 댁

◆ 구역모임

- 노스에디슨
 - 일시: 3 월 16 일(토) 저녁 7 시
 - 장소: 중화루 (주최 : 이종권베드로)
- 썸머셋
 - 일시 및 장소: 3 월 17 일(일) 미사 후 친교실
- 이스트브런스워
 - 일시: 3 월 23 일(토) 저녁 7 시
 - 장소: 박정훈 (베드로) 형제님 댁
- 피스카타웨이/우드브릿지
 - 일시 및 장소: 3 월 24 일(일) 미사 후 친교실
- 럽거스
 - 일시 및 장소: 3 월 24 일(일) 미사 후
 - 장소: 나채국 (제노) 형제님 댁
- 사우스브런스워
 - 일시 및 장소: 3 월 31 일(일) 미사 후
 - 장소: 한상철 (빈첸시오) 형제님 댁

◆ 성 요셉 성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아멘.

◆ 삼중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4, 1-13 (사순 제 1 주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루카 4,4)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루카 4,8)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루카 4,12)

1. 예수님께서서는 악마의 유혹에 답변하실 때, 무엇으로 대응하시나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루카 4,1)

2. 복음에 나오는 하느님(예수님, 성령)의 모습 중에서 나에게 다가온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루카 4,13)

3. 예수님을 유혹하다 실패한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러갑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